

제3회 건설공사 거버넌스 회의 회의록

(2016. 05. 20. 15:00)

건축공사부장 : 안녕하십니까? 건축공사부장 한일현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 공사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 중에 문제점 이런 부분을 상호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금번 거버넌스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발주자와 이해당사자간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궁극적으로 건설공사 품질향상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거버넌스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당초에는 본부장님이 참석을 하시기로 되어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서울시 회의 참석으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내부위원으로 건설사업처 김영수 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건축설계처 이우필 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건설사업부 정성호 부장 참석하셨습니다.

기계공사부의 김혁재 부장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외부위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동지구 3단지 아파트건설공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심재용 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향동지구 8단지 아파트건설공사 현장대리인 안현후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금보금자리주택지구 아파트건설공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문홍준 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금보금자리주택지구 아파트건설공사 현장대리인 배명진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정4 보금자리 아파트 건설공사 이창하 공사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정4는 준공관계로 바빠 현장대리인이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마천지구 3단지 도시형생활주택 및 거여 12-1 장기전세주택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오호석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천왕8단지 및 고척동 장기전세주택 건설공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정병권 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금보금자리주택지구 정보통신공사 현장대리인 박성진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금보금자리주택지구 골조공사 하도급대표로 오국찬 전무님 참석하셨습니다.

문정법무시설 신축공사 통신 현장대리인 백민길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문정법무시설 신축공사 기계현장대리인 정춘가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천지구 3단지 도시형생활주택 및 거여 12-1 장기전세주택 건설공사 감리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건설사업처장 : 반갑습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 이 자리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토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이 자리가 아주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번이 벌써 3회인데요. 당사자들이 모여 서로 토론하고 집중토의 하면서 애로사항을 같이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부장님이 여기에 참석하시려고 했는데 갑자기 시에 회의가 있어서 늦게라도 오신다고 했는데 참석이 가능하

면 바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참석을 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서울시와 우리공사의 각종 주택정책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최종 마무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입주자를 통해서 사후 AS까지 도맡아 최종책임을 지고 계신데요. 그만큼 중요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공사 현장의 여건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고객의 기대수준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 저희가 따라 가기에는 버거운 형편이고. 공사여건은 지급자재 과다라든지, 지급자재 수급문제, 공사현장 민원문제, 각종 점검 관계 되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종전에 하던 방식과 관행으로는 저희가 버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그럼으로써 저희가 해오던 것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현장에서 음성적으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하던 것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이런 것들을 양성화 시켜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면 잘못된 부분이 많이 도출 되면서 현장에서 공사관리를 잘못된 것 같이 비추어 지고, 고생 하고 좋은 소리 못 듣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최근 사례로 저희가 하자대책회의 이런 데에 가보면 기존에 있던 유형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보도도 나왔습니다마는 입주민의 기획소송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분쟁도 많고. 시방이라든지 도면 이런 부분을 입주민들이 면밀히 점검하고 검토해서 그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근거를 내놓으라 하며 제시공을 요구합니다. 특히 도장 같은 경우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지하주차장 바닥 3회 도장이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현장에서 관리가 안 되어 그런 자료가 보통은 없습니다. 현장에서 제대로 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도막 두께 측정을 요구하고, 시험을 요구하고, 관련근거 제시를 요구할 때는 현장에서는 상당히 막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건설현장이 으레 그렇겠거니 하던 사항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시방이 잘못되었거나 지켜지지 못할 시방이라면 건의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되고, 지킬 수 있는 할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고요. 물론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다 정리되고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노력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리를 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더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무더위가 아주 극심할 거라는 예보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옥에 최초로 냉방이 가동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동하고 있지만 현재도 더위를 느낄 정도가 되는데요. 모쪼록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귀한 시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공사부장 : 다음으로 세부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4시 30분까지 주제 발표 및 현장 건의 등 의견발표가 있겠습니다. 4시 30분까지 한 후 10분 정도 휴식을 취한 다음 주제발표에 대한 자유 토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가 끝난 후에는 저녁 식사 자리가 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하여 식사 하고 가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항동 3단지 적정임금제 도입 관련 검토사항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용 단장 : 안녕하세요? 향동3단지 감리단장입니다. 지금부터 적정임금 지급방안에 대하여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적정임금 지급방안 검토에 대한 발표)

건축공사부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향동 8단지 현장대리인 안현후 소장님으로부터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현후 소장 : 안녕하세요? 향동 8단지 현장소장 안현후입니다. 적정임금제 적용 부분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적정임금제 적용 및 체불 노임방지 검토안 발표)

건축공사부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현장 건의사항 등 의견발표가 있겠습니다. 오금보금자리주택지구 문홍준 단장님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문홍준 단장 : 안녕하세요? 오금보금자리주택지구 단장 문홍준입니다. 폐기물 관련, 설계개선 관련, 레미콘 수급 불안정 관련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보금자리주택지구 1, 2단지 아파트건설공사 의견 발표)

건축공사부장 :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건설안전사업본부장님이 오셨습니다.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건설안전사업본부장 : 안녕하세요?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 감리단장, 관계 되어있는 하도급업체 분들이 모여 애로점을 토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버넌스 회의를 하는 겁니다. 원래는 오늘 사장님이 참석을 하시기로 되어있었는데 출장 관계로 휴가를 내셔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에너지관련 하여 MOU체결 때문에 사장님 대신 참석하느라 좀 늦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모여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결재를 하며 회의 자료를 쪽 훑어봤습니다. 자료를 보니 현장의 애로점이 나열되어 있는데 설계변경이라든지 공사와 관련되어있는 게 주더라고요. 제가 좀 아쉬웠던 점은 그게 아니라 공사관리를 하고 갑측에서 부당한 이야기라든지, 부당하다기보다 애로점 이리이러한 것들은 개선을 해달라. 그리고 감리단에서 시공업체에게 이런이런 것들은 좀 개선을 해달라. 서로의 소통을 위한 거버넌스로 저희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현장의 문제점 위주로 흘러버리면 저희가 구상했던 것과는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회의자료를 보면서 이런 애로점이 있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발표를 하시면서 이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갑, 을, 병, 정 이런 관계 속에서 협업을 하여 현장을 챙기는 그런 과정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작년에도 거버넌스 회의를 했고 이번이 세 번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는 다른 주제 발표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집중토론을 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을 뵈는데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협업을 하고 거버넌스를 하는 목적은 가장 중요한 게 현장관리라고 봅니다. 특히 일선에 있는 현장대리인과 감리단장님이 현장을 장악하지 못할 때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저는 건설과 안전이니까 건설 분야도 있지만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는 것은 건설도 중요하지만 안전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6월 달이 되면 우기가 시작되니 현장을 철저히 잘 챙겨 주십사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건축공사부장 : 다음으로 오금보금자리주택지구 골조공사 하도급대표 오국찬 전무님 발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국찬 전무 : 안녕하세요? 오금동 보금자리주택 1, 2공구 골조업체 오국찬 전무입니다. 저

회 현장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금보금자리주택지구 골조공사 의견 발표)

건축공사부장 : 네, 오금지구 골조공사에 대한 애로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마천지구 3단지 도시형생활주택 및 거여동 장기전세주택 건설공사 오호석 소장님의 발표가 있습니다.

오호석 소장 : 네, 거여마천지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천지구 3단지 도시형생활주택 및 거여동 12-1 장기전세주택 건설공사 의견 발표)

건축공사부장 : 오호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천왕 8단지 및 고척동 장기전세주택 건설공사 정병권 단장님의 발표가 있습니다.

정병권 단장 : 안녕하십니까? 천왕8단지 및 고척동 건설공사 감리단장 정병권입니다. (천왕8단지 및 고척동 장기전세주택 건설공사 의견 발표)

건축공사부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정4 보금자리 아파트 건설공사 이창하 공사차장으로부터 발표가 있습니다.

이창하 차장 : 신정4 현장의 이창하 차장입니다. 현장 준공 관련하여 사장님이 참석하지 못하고 제가 참석하였습니다. (신정4 보금자리 아파트 건설공사 의견 발표)

건축공사부장 :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지구는 개선사항 위주로 발표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금보금자리주택지구 1, 2단지 전기통신공사 박성진 소장님의 발표가 있습니다.

박성진 소장 : 반갑습니다. 오금보금자리주택지구 정보통신공사 박성진 소장입니다. (오금보금자리주택지구 1, 2단지 전기통신공사 의견 발표)

건축공사부장 : 설계에 필요한 사항, 반영이 필요한 사항 위주로 발표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문정법무시설 신축공사 통신 현장대리인 백민길 소장님의 발표가 있습니다.

백민길 소장 : 문정법무단지 청사 통신 현장대리인 백민길입니다. (문정법무시설 신축공사 의견 발표)

건축공사부장 : 다음으로 문정법무시설 조경공사, 안 오셨나요?

백민길 소장 : 두 번째 안전에 대해서 기계 현장대리인 정찬구 소장님이 참석을 하셨거든요. 그 분께서 발표를 하실 겁니다.

정찬구 소장 : 문정법무시설 기계 현장대리인입니다. (문정법무시설 신축공사 의견 발표)

건축공사부장 : 문정법무시설은 다 끝난 거죠? 다음으로 우리공사 이우필 설계처장님부터 말씀이 있습니다.

건축설계처장 : 감사합니다. 설계처장입니다. 거버넌스라는 게 상생을 위해 회의를 하는 것이 다 알고 있고, 그동안 참석을 했어야 했는데 처음으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발주처 입장에서 보면 의견을 많이 들어야 하는 그런 자리이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설계분야에 대해서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내용을 보니 몇 가지가 있네요. 앞으로 거버넌스를 하게 되면 저 말고도 설계처 부장들이 참석을 할 겁니다. 현장에서 설계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금보금자리 1, 2단지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강화마루를 강마루로 바꾸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실제 강화마루는 민원이 많아서 거의 시공을 안 하는데 과거에 설계가

되다 보니까, 아마 강마루로 바꾸다 보면 예산이 많이 올라가는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감독들과 협의를 해서 그 방안을 찾아보세요. 저희 설계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복공판 설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게 설계 때 미리 반영 되면 낙착물이라든지 이런 문제, 사실 설계변경이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요청일 텐데 가설공사가 되다보니까 공사파트에서 설계변경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경비실 지붕이라든지 고드름에 대한 사항 좋은 말씀이고요. 앞으로 설계 할 때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 외에도 설계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거버넌스 자리가 아니더라도 감독들을 통해 저희 설계부서와의 협의를 요청하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일정이 있어 미리 나가봐야 되는데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자료에 없어도 좋습니다. 설계가 개선될 사항이 있다면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하 차장 : 저희 신정현장에서 소방서와 미팅을 하다 보니까 당초 설계를 보면 녹색인증 때문에 조경면적을 30% 이상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한 동이 거실 앞쪽으로 도로가 4m 나 있는데 4m면 소방차가 다닐 수 있는데 소방차전용이라 하는 6m를 확보하는 구간이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설계사무실과 질의를 하다 보니까 녹색인증 때문에 그게 반영 안 되었다는 답신을 받았는데, 그것 가지고 소방서와 미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건축설계처장 : 네, 설계하다 서로 여러 가지 착오가 있었을 수 있어요. 녹지면적은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 소방차 대기공간에 대해서 포장을 하다 보니 녹지가 줄어드는 부분 그런 부분이 조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찾아보고요. 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윤병서 단장 : 마천3단지 책임감리 윤병서입니다. 저희 마천 3단지는 1개동이 1층 8개 세대 하부에 지하저수조와 전기실, 펌프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설계과정은 모르겠지만 최대한 흡음이라든지 소음, 진동 이런 것을

건축설계처장 : 그러니까 동 하부에 기계실 이런 게 다 있다는 이야기지요?

윤병서 단장 : 네. 저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고질민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건축설계처장 : 마천이 몇 개 동이죠?

윤병서 단장 : 3개동 128세대입니다.

건축설계처장 : 지금 저희가 설계하고 있는 것은 진동음이 세대로 타고 올라가는 것 때문에 동 하부에 기계실 및 전기실 넣는 것을, 특히 기계실. 진동이 유발되는 시설을 넣는 설계를 배제하고 있는데 마천지구는 그 전에 설계가 되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지금 공사가 어디까지 되었지요?

윤병서 단장 : 1층 벽체 철근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설계처장 : 그러면 다른 데로 옮길 수가 없잖아요.

윤병서 단장 : 네,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피트층을 한 층 더 만든다든가.

건축설계처장 : 그것은 상관없어요. 골조타고 진동 되는 것은 피트층이 있다고 소음이 저감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동하부에는 그런 시설을 안아 두는 게, 지금은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것 때문에 방진패드를 쓴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왔는데 기계 쪽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지만 사실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시공사와 감리단에서는 우리 감독들과 협의하셔서 공사를 할 때부터 미리 검토를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밑에 패드를 치는 등 건축에서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윤병서 단장 : 그리고 또 하나 저수조 물탱크 위로 세대의 오배수관이 있습니다. 현재 도면상에는 그것을 스틸이나 커버로 해서

건축설계처장 : 그것은 배관위치를 옮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기계공사부장 : 옮길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고요. 우리가 검토 하면서부터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상부에 세대가 있으면 배수가 내려오는데, 그 밑에 기계실과 펌프실이 있는 것인데 거기에 중간 피트층이 없는 거예요. 중간 피트층이 있으면 별도로 하는데, 그런 부분인데 마천은 방법이 없을 거예요.

건축설계처장 : 마천지구라 하셨어요? 마천지구는 설계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윤병서 단장 : 저희 요청이 그겁니다. 지금이라도 저희 현장이나 시공사 측에서 비산이라든지 오염이 될 수 있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을 개선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데도 적용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건축설계처장 : 그것은 요청을 하세요. 감독들이 그것을 안 합니까?

윤병서 단장 : 그게 아니고요.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너무 과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계공사부장 : 그게 아니고 설계 쪽에서 VE 하면서 그 부분을 없앴어요.

건축설계처장 : 어떻든 간에 그것은 설계부서에서 다시 점검을 할 테니까 의견을 주세요.

건설사업부장 : 2단계가 설계가 있는 현장이라서 우리가 설계검토해서 일부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계공사부장 : 더 이상은 안 되고 현재 상태에서 보완방안을 찾아야지.

건축설계처장 : 골조가 타설 되었다고 하니까 거기서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겠네요. 하여튼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의견을 주고, 저희도 검토해서 저희가 감독부서에 통보하겠습니다.

이창하 차장 : 같은 내용인데 신정 현장에서는 그 사항이 있어 보커버, 이것은 지금 설계가 되어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게 없어서 보커버로 처리를 했습니다.

건축설계처장 : 커버 했다고 그게 해결이 됩니까?

건설사업부장 : 터지면 밖으로 흘러가게끔.

이창하 차장 : 네, 유도할 수 있도록.

건축설계처장 : 하여튼 설계할 때 미리 검토가 되었어야 할 사항인데 놓쳤네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현후 소장 :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금보금자리주택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폐기물처리 부분입니다. 저는 다른 현장이지만 폐기물처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가 많습니

다. 저도 발주처와 이야기 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어보는데도 뚜렷하게 개선이 안 됩니다.

건축설계처장 : 폐기물처리라는 게 공사현장을 어떻게 꾸려 가느냐에 따라 양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죠?

안현후 소장 :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분리수거를 강화시켜 하더라도 정산 때 가보면 지금 단장님이 4억 5,000 5억이라고 하는데 빈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오버되는 부분은 사실이거든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접목을 해서 수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축설계처장 : 당초에 우리가 연면적 기준으로 산정한 기준보다 실제로 발생하는 폐기물양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안현후 소장 : 네. 이것은 전체 건설현장 대부분 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축설계처장 : 저희가 당초 기준보다 많이 올려놨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산정기준을 많이 올려놨는데, 우리가 사례조사를 해서 지금까지 설계변경한 정산내용을 보고 올려놨는데 계속 공법이 바뀌다 보니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라멘구조로 가다 보니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현장에 따라서 폐기물 발생량이 달라질 수 있어요. 똑같은 건물이라도 시공사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노력 하는데 정확하게 나온 데이터가 있으면 좋은데, 이것은 아마 장기적으로 정산한 데이터를 축적해서 그 기준을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현후 소장 : 항목부분도 세분화 시켜서, 실제로 건설현장 같은 경우 혼합폐기물의 발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항목에는 혼합폐기물이 누락 되어있거든요.

건축설계처장 : 이번에 개정해서 혼합폐기물 반영을 시켰는데…….

건설사업처장 : 벽식구조와 라멘구조가 좀 다르잖아요. 그 부분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어 그것도 문제다 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양에 대해서 가감하고 조정을 했는데 전체 총량을 많이 늘리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LH라든지 유사 사례도 있고, 특히 환경부 사례가 나와 있어요. 환경부가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데 환경부에 m²당 기준양이 있어요. 그것을 SH만 단독으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사례조사해서, 각 현장마다 다 오버는 되고 있어요. 저희가 계속 설계변경 하면서 시공사에 부담을 시키는 현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공사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고 같이.

건축설계처장 : 장기적으로 데이터가 축적 되면 전반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겁니다.

건설안전사업본부장 : 폐기물 관련해서 경량벽체 때문에 늘려줬잖아요.

건설사업처장 : 말씀을 드렸지만 벽식과 라멘조가 우리가 인정해주는 폐기물양이 구분 되어있어요.

건설안전사업본부장 : 벽식양 보다 우리가 내곡, 세곡을 하면서 경량벽체를 쓰므로 인한 것에 대해서 대폭 인상을 해줬잖아요.

건설사업처장 : 많이 올려줬어요.

건설안전사업본부장 : 이것은 새로운 이야기니까 검토는 하시고요.

건설사업처장 : 네.

건설안전사업본부장 : 제가 질문을 좀 할게요. 철근 시중단가 있잖아요. 톤당으로 한 겁니까?

안현후 소장 : 네, 톤당으로 계산 한 겁니다.

건설안전사업본부장 : 표준품셈단가를 안 적용해요?

안현후 소장 : SH발주 시에는 표준시장단가를 100% 적용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부장 : 그게 아니에요. 품셈으로 계산하면 그만큼 나오는데 표준시장단가라는 것은 실 적단가요. 낙찰률이 적용된 단가라고요. 그러니까 표준품셈단가에 낙찰률을 곱하면 표준 시장단가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건설안전사업본부장 : 레미콘 같은 경우 따지면 한 사람의 노임단가가 한 사람의 표준품셈단 가가 48만 이렇게 안 나올 텐데.

안현후 소장 : 품셈단가입니다.

건설안전사업본부장 : 지급하는 단가보다 실제 지급하는 게 높은 것으로 저희는 파악되어있거 든요. 그렇지 않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표준품셈의 품셈보다 철근 공 같은 경우 일량이 5배가 높아요. 건설회사가 그만큼 일을 많이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레미콘 같은 경우 15배를 치고 있거든요. 품셈사항에 나오는 일당량과 실제 하는 일당량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문제의 발단은 뭐냐 하면 실제 일하는 양과 그 사람들이 받는 노임은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발표를 해주셔서 고맙고요. 어쨌 든 그것은 뭐 저희가……. 나머지는 설계 감독들과 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이야기했던 마천지구의 공기문제. 필요하면 공기 신청하세요. 복공판 같은 경우도 필 요하면 설계변경 하면 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요 작업장이 있어야 할 텐데 그거야 설계상 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잘못 이야기 할 수도 있으니까 7

건설사업처장 : 맞아요. 실정보고 다 되었어요.

건설안전사업본부장 : 아까 이야기한 것 중 갱폼으로 안 되었으면 리브식으로 하면 안 돼요? 줄눈으로 충분히 커버돼요. 설계하고 협의를 해서 리브를 집어넣으면 돼요. 리브를 횡으로 종으로.

건설사업부장 : 리브를 집어넣는데 안에 철판이 들어가야 리브가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유 로폼으로만 되다보니까 유로폼 자국이……. 안에는 되었으니까 안에 철판가격을 줘라. 그리 면 리브를 만든다는 거죠.

건설안전사업본부장 : 그것은 철판가격을 검토해보세요.

건설사업부장 : 네, 그것은 설계변경 해줄 겁니다.

오호석 소장 : 그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실제로 일하는 철근콘크리트 업체에서 확답 을 받고 싶어 하거든요. 저희 마천 현장이 진행 중인데 구두로만 이야기가 된 상태로 확답 이 없으니까

건설안전사업본부장 : 이것은 반영을 하세요.

건설사업처장 : 이따 토의시간에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안전사업본부장 : 제가 좀 이따 나가야 하니 그것은 이따 토의를 하세요. 천왕8단지 같은 경우 시공사가 동비건설인가요? 감리단이 지적한 것처럼 안전관리계획서라든지 이런 게 아 직도 안 되어있어요?

정병권 단장 : 아니요. 그것은 다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다 되어있고요.

건설안전사업본부장 : 네, 잘 하시고.

안 그래도 제가 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소방감리원 배치기준은 빨리 바꾸세요. 그리고 통신

감리원의 발주방법도 마찬가지로 건축해 갖고 거기에 포함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발주방법을 바꿔서 대가를 집어넣어줘요.

건설사업부장 : 애초에 발주할 때 집어넣어야 되는데 추가로 통신감리원을 배치하고, 건축감리원을 뺄 수는 없다고요.

건설안전사업본부장 : 감리비에 통신공사비를 집어넣어서

건설사업부장 : 총액에서 조정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건설안전사업본부장 : 통신공사비를 집어넣어서 인월수를 산정하면, 감리단에서 당연히 배치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결을 하시는 게 맞다고.

전기공사부장 : 통신공사비는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너무 작기 때문에.

건설안전사업본부장 :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

복공판 문제는 알아서 하시고.

보도블록 콘크리트보인데 녹지공간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창하 차장 : 아닙니다.

건설안전사업본부장 : 보도에서 녹지공간으로 바뀌니까 이 개념이 달라진다고요.

이창하 차장 : 아닙니다. 당초 보도 밑에 있던 연결관을 조정구역 아래쪽으로 연결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설안전사업본부장 : 그것은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문정 같은 경우 변경사항이 그렇게 많다면 그것을 뽑아요. 그것을 뽑아서 설계사무실에 제재를 가해야지요. 몇% 이상이면

건설사업부장 : 5%입니다.

건설안전사업본부장 : 5% 이상이 되면. 설계변경이 많음으로 인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아예 입찰참가제한을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하시고.

그리고 레미콘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계속 당할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피해준 사례를 정확하게 뽑아서 나중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자고요. 레미콘 회사를 상대로. 하도급업체가 그런 사례를 계속 모으세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공기연장을 해주든가 할 테니까. 그 공기연장에 대한 관리비 이런 것들은 소송을 제기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서류를 만들어주세요. 시공사도 그렇고. 그것은 정확한 납기에 너희가 안 해서 공정에 피해를 입었고, 그 사유로 우리가 공기연장을 해주는 거잖아요. 당신들이 책임져라.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그런 공문을 보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배명진 소장 : 했습니다.

건설안전사업본부장 : 계속 하세요. 그 서류를 분명하게 남겨 뒀어요. 아니면 개네들한테 사인 받든가. 저희가 공기연장을 해줄게요. 그 대신 거기에 대해서는 레미콘회사로부터 추후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자고요. 공기가 연장되면 시공사가 받은 것과 하도급업체가 받은 피해를 다 청구해서 소송을 하자고요. 우리가 할 테니까.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저는 내려가서 할 일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저녁을 살 테니까 가지 마시고 저녁 드시고 가지지요. 저는 일이 있어 먼저 나가겠습니다.

건축공사부장 : 잠시 10분 동안 휴식이 있겠습니다. 4시 37분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토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주제는 발표가 있었으니 그 외에 자유롭게 생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처장 : 부장님들, 여러 가지를 들었는데 이야기를 해주시지요. 현장에서 이 외에 추가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우리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타현장 발표한 것을 보고 조언할 게 있으면 조언도 해주시고요.

건축공사부장 : 아까 말씀하신 오금지구 레미콘 수급이 어려워 계속 문제되는 부분.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레미콘 업체와 소송까지 갈 것을 예상하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하든 추후 소송을 하든 이런 부분이 되니 그런 부분은 명확한 자료에 의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소송에서 저희가 꼭 승소, 물론 피해를 입은 것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계량화된 부분이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잘 준비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자료,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사업부장 : 오늘 거버넌스 관련해서 이런 내용을 상생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소장님과 신 단장님이 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걱정임금. 걱정임금에 대해서 깊숙이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걱정임금이라는 자체의 용어도 어렵고, 사회적 합의가 수반 되어야 되고. 그러나 그 보다 어차피 현장소장님, 단장님들이니까 이런 것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시중노임단가. 시중노임단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품셈에 의해서 내역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품셈이라면 m²당, m당, 개당 했을 때 재료비, 노무비, 경비 얼마가 들어가는지. 실제로 거기에서 우리가 수량 곱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것인데, 레미콘 타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있느냐면 루베당 0.03인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한 500루베 친다. 500루베에 0.03을 곱하면 15인이에요. 15명의 타설공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500루베 치는데 15명이 치느냐는 거예요. 15명이 치는 품셈의 시중노임단가 지급을 5명이 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15명이 할 노무의 금액을 5명이 나눠 먹는 거예요. 결국 노임이라는 것은 사실 걱정하게 하다 보니까 품셈의 인월수를 점점 줄여가며 변형이 되고 변종이 되어가는 거죠. 근로자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본부장님이 이야기한 게 그런 거죠. 품셈에 의한 인월수가 열악해지고 있다는 것이 그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감리단장님이나 소장님은 현장에서 내역에 주어져 있는 타설공에 따른 루베당 0.03 일위대가에 있는 그 인에 대해서는 왜 확보하지 않고 15명이 투입되어 타설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두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500루베를 3~4명이 타설을 하잖아요. 계산상으로 볼 때는. 현실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데 걱정한 임금과 대비해볼 때 반대로 생각하면 시중노임단가가 그만큼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엄청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나와 있는 하루일당 받는 금액보다는 시중노임단가가 비싸다. 따지고 보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지. 받는 사람은 세 사람 몫을 자기 하나가 받는 거예요. 결국 시중노임단가에 3인이 받는 것을 혼자 받는 것과 똑같은 거야. 500루베 타설에 15명이 해야 되는데 지금은 5명이 타설에 붙어 돈을 나눠 먹는 것 아니에요. 그러한 부분이 현실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임금의 뜻은 이렇게 나온 것은 뭐냐 하면 어차피 건설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3D업종 이러다 보니 청년일자리창출 이런 부분에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임금이 보장되는 적정선이 어디냐? 그것을 맞춰주면 건설현장도 좋은 직업으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단초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한 것에 맞추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어려운 점이 있는데 법도 개정되어야 되고 많더라고요. 그러나 현장에서는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단장님이나 소장님은 품의에 되어있는 금액 자체가 지금 하도 내려가고 아까 설명을 하셨듯이 단위물량에 근로자한테 가는 것은 돈 맞추기 끼어 맞추기 식의 일이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하다보면 안전사고도 생기고, 품질확보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타설할 때 바이브레이터를 대고, 타설공이 타설하고 이런 부분에서 15명이 레미콘 타설할 때 바이브레이터 대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업무가 붕괴 되고, 작업이 나누어져 있는데 타설을 5명이 다 하니까 타설을 하더라도 공기량을 빼기기 위해서 바이브레이터를 제대로 작동 안 한다든지 그러면 품질 더 나빠지는 것 아니냐. 그러한 측면에서는 감리단이나 현장에서는 현장에 제대로 투입되어야 될 인원에 대한 부분을 한 번 챙겨봐야 된다. 적정임금관련해서 단장님, 소장님 생각을 해보시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레미콘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오금 여러 현장이 문제입니다. 공사 하는 데도 그렇고.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레미콘도 매 한 가지죠. 계약관계의 내용을 정확히 따져주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품에 얼마 루베를 쳐야 되는데 장비투입이 얼마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양이 부족해서 품 이상으로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것을 논리적으로 우리 발주처에 문제점을 제기하면 추가비용 발생하는 부분은 근거만 있다면 드릴 수 있다고요. 그 근거로 해서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 붙을 때 우리 구상권을 청구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8/5제로 인해서 이런 피해가 원도급뿐만 아니라 하도급에도 안 보이는 피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 피해가 안 보인다고 하지 말고 품셈이라든지 적용되는 내역에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하루에 칠 양을 못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정확히 도출해서 그 근거로 마련해보시라고.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근거가 있다면 추가비용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그 귀책사유가 어차피 지급자재이다 보니 SH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반영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우리가 조합 측에 압박의 수단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단장님, 소장님이 심도 있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이것은 여기서 이야기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지만 철근 관계도 중국산 철근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KS 이상 동등 이상이면 쓰지 말라는 근거는 없어요. 그런데 업체 입장에서는 철근을 썼으면 좋겠다는 게 팽배해 있고, 또 철근 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요. 이런 것도 우리 발주처에서 쓰라고 할 수는 없다고요. 건설협회 이런 쪽에서도 중국산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가 확보되고, 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게끔 협회나 건설 쪽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임의로 쓰라마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애매모호합니다.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안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쓰지 못할 근거는 없는 것이지만 시의회나 이런 데에서도 그런 부분이 이야기되다 보니 조심스러워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사회적인 합의 이런 것이 수반 된다면 못쓸 이유가 없는 거죠. KS 이상이고 동등품질 이상이면 쓸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노력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립니다.

더 드릴 말씀은 없고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기계공사부장 : 기계공사부장 김혁재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신데 말씀하신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금지구 통신실 환기시설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통신실이 각 동지하마다 다 있지요? 상당히 물량이 많을 텐데, 우리가 통신실은 환기시설을 안 하거든요. 만일 거기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를 거쳐서, 이미 콘크리트 타설했으면 창이 없거나 그러면 그것도 문제거든요. 일단 현장에서 검토해서 설계변경을 올리도록 하시고요.

문정지구에서 공사가 지연되는 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고요. 송구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정지구 복합공사 부분이 법무부에서, 이번에도 에어컨 냉매배관을 설치해달라고 공문이 왔어요. 골조가 다 끝난 상태에서 에어컨 냉매배관을 설치 해달라 했는데 아주 고민입니다. 공문으로 설계변경 해달라고 왔는데 반영 안 할 수도 없고, 무시할 수도 없고 그런 상태예요. 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법무부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거기에 장비들이 많다 보니 냉난방 여러 가지 장비와 당초 지역난방 쪽과 시설기준 관련한 것 때문에 한 동안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늦어진 감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정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고요. 향후에는 어떤 결정이 지연 되어서 그런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천지구 지하 펌프실과 마천뿐만 아니라 마천, 고척, 천왕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현장에 가보면 있습니다. 사전에 검토 해봐도 있는데 VE과정에서 원가절감 측면에서, 저희가 VE도입한 게 얼마 안 되었는데 원가절감 측면에서 반영이 그렇게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있었던 게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어쨌든 원가절감 하는 것도 좋지만 입주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불편을 안 느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편을 안 느끼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입주민이 요구하거나 현장에서 요구하는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검토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소방 비상주감리원의 투입시점 조정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부장님이 조정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견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천왕지구 때문에 나왔는데 사실 천왕지구 비상주감리원이 제대로 안 나왔어요. 아시잖아요. 나와야 될 사람이 안 나와서 우리가 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감리 시켜버렸지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인데 우리가 돈을 그냥 주는 것 아니거든요. 그 감리비 적지 않습니까. 상당부분 되잖아요. 그러면 나와서 할 일 하셔야지. 그리고 돈 받아 가셔야지.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든 간에 사전에 그것에 대한 원인이 있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내용을 보면 착공계 제출 후에 그리고 착공계 제출 이전 단계에서는 설계도서 검토 등 외에는 업무량이 많지 않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방은 착공계가 좀 달라요. 소방서에 들어가기 전에 소방시설 관련된 것을 다 검토해서 소방시설이 전부 들어간 상태에서 들어가 줘야 돼요. 착공계 검토 안 하고 착공계 누가 냈니까? 자체감독이 아니면 일단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비상주감리원이 있어야 감리가 투입되면서 사전에 다 검토하고 현장 착공하면 착공계 들어가서 설계변경이든 이런 게 미리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 또 하나 문제 뭐냐 하면 소방이 분리발주 되다 보니까 한 피트 안에 설비와 소방이 따로 따로 들어와요. 같이 묶어서 해야 돼요. 같은 피트 안에 소화전,

스프링클러 올라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이 사업 꾸려서 거기다 슬리브 못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같이 슬리브 배치도 해서 사업을 그려서 시공할 때 같이 해줘야 되고. 현장의 공중관리 하는데 소방이 약간 애로가 있습니다. 분리발주하면서 건설사에서 다 받아 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같이 들어오다 보니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에요. 검토사항이 많지 않다는 것은 일을 안 하면 없죠. 일을 많이 한다고 하면 많이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의 투입시기는 주1회 하는 것도 좋고 그것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제연설비라든지 초고층이 아니라든지 그런 상황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고요.

이것과 별도로 신정도 준공을 하고 있는데 6월 16일이 준공이잖아요. 마감공사가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그에게 상계보금자리에 나갔어요. 왜나갔느냐면 불려나갔습니다. 하도 시달려서 전화 몇 번 받고 나보고 나오래요. 나와는 전혀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나보고 나오래. 하도 그래서 일단 약속하고 나갔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접수하는 세대 리스트를 뽑았어요. 도대체 뭐를 문제로 이야기하는지. 그 전화한 사람이 과거 15년 전에 저와 인연이 있는 사람이에요. 15년 전에 민원으로 3개월 제가 엄청 고생 했거든요. 그 사람이 또 상계동에 들어왔어요. 거기서도 소문이 나있더라고요. 가서 출력을 하니까 접수한 게 A4로 3장이 나와요. 자기세대 전용 부분에서만 A4로 3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AS하는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한대. 왜냐하면 가서 자꾸 말 들으니까 안 가려고 한대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세대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내가 봐도 기가 차긴 하더라고요. 난방이 안 된다고, 난방철도 아닌데 난방 안 된다고. 나를 오라고 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타일 줄눈, 도배 건축사항을 잔뜩 해놨어요. 하자를 다 했어요. 한 번씩은 가서 했어. 하다못해 욕실 타일까지 교체를 했어요. 내가 생각해도 화나겠더라고요. 해놓고 있는데 줄눈부터 하나도 안 맞다 보니까, 왜냐하면 양변기 뜯어내고 구매도 맞추고 해야 되는데 그냥 놔두고 하니까 안 맞죠. 줄눈도 어디는 손가락 같이 넓고 내가 봐도 좀 그래요. 심하더라고요. 그리고 미끄럼방지 타일이다 보니 안 빠져. 물이 안 빠져. 물이 고여 있어.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질을 부리고 그러더라고요. 발코니 쪽 타일을 쪽 일렬로 했는데 한 쪽이 쪽 들어가 있어요. 쪽 들어가서 이렇게 굽었어. 세탁실 쪽인데 세탁실 쪽도 구매가 안 맞고. 내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사는 데 지장 없으니까 그냥 사세요. 그랬거든요. 내가 아니까 그런 거예요. 사는 데 지장 없으니까 그냥 사세요.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엄청 신경질 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한 번 한 거래요.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는 이유가 그거구나. 접수가 되었으면 CS팀장 이런 사람이 조정해서 한 번에 해주면 되는데 오늘 한 사람 왔다가 하고 가고, 내일 또 왔다 하고 가고. 하고 갔는데 보면 엉망이고. 그 사람이 3월 달에 입주해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열이 받으니까 그런 게 있는데, 현장 마감 제가 봐도 재수없을려나 그런지 몰라도 악성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그런 세대로 들어가더라고요. 마감이 너무 안 되어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기성과 준공을 해서 대가를 받잖아요. 대가를 왜 받으니까? 온전히 마무리를 했고 온전히 일을 했으니까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온전히 일을 안 해놓고 받아가고, 준공하고, 하자처리 제대로 안 해서 그 고생을 만드느냐 이거죠. 다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상계도 마감에 쫓기고 그런 단지거든요. 다는 아니

지만 어쨌든 간에 감리나 현장에서 시공 하면서 한번쯤은 체크를 해주고 한번쯤은 기능공에 대해서 세대 안에는 그래도 숙련공이 투입되어야 되지 않느냐. 전용부분은 분양해서 거주자가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은 초보보다는 숙련공이 들어가 일을 해줘야 타일 줄눈부터 그런 것이 마감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고요. 현장에서 소장님들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거버넌스 회의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최근 계속 민원에 시달리다 보니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현장 마감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사업처장 :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우리 입주자들도 옛날 같지 않고 옛날에는 어느 정도 용인하고 건설현장의 관행으로 수공을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공장제품 찍어 나오듯이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를 뽑았는데 거기에 흠집이 있으면 그것을 받겠냐? 그런 정도까지 요구를 하는 수준에 다다랐고,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최대한 따라 가는 취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애로사항이고. 그렇게 하려는데 현행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을 찾아내서, 오늘 적정임금에 대해서 품셈 이야기도 나왔고 임금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되어야 그런 것을 따라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노력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변경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최종 정리하는 의미에서 하나하나 보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적정임금에 대해서 두 분이 연구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 일치하는 것 같고, 조사를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계속 나온 이야기이긴 한데 품셈 문제, 적정임금의 개념이 무엇인지. 국토부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능공 등급에 따라서, 초보자나 경력자나 다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등급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선행 되어야 되고 제도가 따라 줘야 되고 그에 따라 입찰방법이 개선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자체에서는 한계가 있고. 서울시에서 이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고 시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도 거기에 맞춰 현장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건에 대해서 두 분이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못하는 게 있어요. 근로자들 별도로 계약서를 쓰고 있잖아요. 주5일 하면 하루 유급휴가를 줘야 된다. 민노총이라든지 근로자단체에서는 그런 요구를 하는데 현장에서는 거의 현실과 안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논리가 부족합니다. 제도적으로는 반영되어있는데 현장에서는 따라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해서 따라 가야 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고민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불법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도 정식허가 절차를 통해 들어오신 분이 있잖아요. 음성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단속을 하게 되면 현장만 다치는 거거든요. 현실은 어쩔 수 없는데……. 이것을 자꾸 노출시켜 양성화 시키는 방안을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지 않느냐. 불법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한다면 그것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해보이고 그것도 고민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면 채용당사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피해를 입고, 공정에도 피해를 입고, 품질에도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

습니다.

세부적으로 각 현장별로 당면문제들을 이야기해주셨고, 설계변경 되어야 된다는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주셨는데 폐기물은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 넘어가고요. 강마루 하는 것도 설계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비용문제라든지 방안을 찾아보고. 레미콘 수급 문제도 오늘 가장 핫이슈가 된 것 같은데 여러 분이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비단 우리 현장뿐만 아니라 민간이라든지 전체 현장에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과 연대해서 다른 데에서 대응하고 있는 사례라든지 민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례를 조사해서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그것도 좋은 본보기가 되니 시행사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보순 팀장 :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조달청에서 회의를 했는데 레미콘 회사들도 많이 왔거든요. 오히려 우리한테 성토를 하더라고요. 날짜를 잡아놓고 그 날짜에 안치고 며칠 미루어 날짜를 잡아 달라 그러고. 그렇게 잡아주면 또 밀어 달라 그러고. 자기네들은 예약을 잡아놨는데 수급계약을 다 해놨는데 그렇게 하면 공장 가동이 안 되지 않느냐. 오히려 우리한테 성토를 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까지 가는 사항이 발생한다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그거 들이댈 겁니다. 자기네들이 잘못된 것 아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백테이터를 충분히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사업처장 : 오늘 같은 경우 좀 아쉬운 게 레미콘 공급업자도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하여 이야기를 들어보고 거기서는 어떤 애로가 있는지. 한쪽 이야기만 들으면 일방적인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거든요. 회의 가보면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마천 체가름양 하는 것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담당자와 집중 검토를 해보시고. 어차피 전체 일양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싶고. 결과치만 봤을 때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생각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골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 우리가 소규모 건축을 할 때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내곡도 그렇고, 신내의료안심도 그렇고 결국은 가면 골조면 불량으로 해서 나중에 면정리하는데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도 많이 받고, 공사품질저하도 지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반영을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천왕8단지 감리가 착공 후 늦게 투입 되었는데 감리발주가 조금 지연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공사착공과 동시에 감리투입이 늦어져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이 늦어져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다보니 늦게 투입되어 투입 전에 이루어진 사항 때문에 감리에서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연투입이 될 경우 저희 감독들이 사전에 조치할 것은 검토해서 조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신속한 의사결정은 저도 100% 동의를 하고 현장의 행정적인 처리가 지연됨으로써 현장 일이 지연되면 그것은 일이 거꾸로 되었다. 조치가 되어야 되고, 사전에 되어야 된다는 것 당연히 맞는 이야기이고요.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감독들과 하다 보면 검토과정에서 조금씩 늦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월 월간공정회의도 하고, 현장에서 본부장님 이하 모여서 숙의하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건의를 하면

바로 시행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감독들도 그렇고 저희가 지탄 받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외부감사라든지 우리 내부감사 또는 행정 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다 먼저 일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설계변경 올려서 오도 가도 못하게 하고 결국은 사인하는 으레 적인 절차 형식적인 절차로 밟아서 가는 게 아니냐. 먼저 시행해놓고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지적을 많이 받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고쳐야 되겠지만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독들도 그런 것을 지시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저도 참석하고 부장도 참석하고 본부장님도 참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부적인 의사결정만 되더라도 상당히 성공한 것이라 보이거든요. 그런 데에라도 토의해서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정식 승인이 아니더라도 그런 회의가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고.

신정4는 마무리하느라 고생 하시는데 여러 가지 개선사항을 발표해주셨는데 고맙게 생각하고요. 다른 데에서도 참고해서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금과 전기통신 이것은 각 공종간 협조체계인데, 부장님들 현장회의 별도로 하나요? 공종간에 문제가 있을 때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공종만 생각하지 말고, 건축뿐만 아니라 전기통신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건축에서 해놓고 가면 전기통신에서 후속작업 들어오면서 뒷정리가 안 되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서로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후속공종에서는 건축공종에서 지연될 경우 작업에 쫓기다 보면 품질이 불량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잘 협력해서 해주시는 방법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공종간에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조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정법무단지에서 여러 분이 오셔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법무부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의사결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올해 말 준공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작업을 완료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바쁘시겠지만 지금이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내부 인테리어도 그렇고 마감도 그렇고 공종간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중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추가로 하실 이야기가?

건축공사부장 : 추가로 말씀하실 분이 있나요?

윤병서 단장 : 없는 내용이지만 한 가지 건의사항인데요. 도심에서 작은 규모의 공사가 많이 생기다 보니 선정되는 시공사도 소규모 시공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체선정시 품질이라든지 안전, 자격이라든지 업무능력이 법적으로 검증 되지만 공무 1명 정도는 업무능력을 검증해서 하는 방법도 건의를 드립니다. 왜냐 하면 SH공사 경험이 없는 회사라든지 업무능력이이라든지 재원이 부족한 회사로 인해 행정 서포트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현장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립니다.

건설사업처장 :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올 초에 신년업무보고 할 때도 소규모현장 관리대책 같은 것을 많이 보고 했어요. 거기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인데 한 번 고민을 해보자. 좋은 의견 같습니다. 참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고민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공사부장 : 추가로 말씀하실 분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제3회 거버넌스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저녁식사를 하며 허심탄회 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